

예

927. “예”라고 말하는 것만큼 짧고도, 또 그것을 유지하는 것만큼 긴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피조물에게 아무 것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미칠 듯이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언제나 “예”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928. 그대의 “예”는 그대를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의 모든 계획에 대한 긍정이 되어야 합니다.

929. 강생의 “예”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광야에 새로운 신비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처음으로 사랑의 콘서트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930. 어머니, “예”라고 말하도록 저를 도와 주십시오. 저는 그리스도 신비체의 무게를 지고 가시는 어머니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931. 언제나 “예”, 만사에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사랑으로 저를 맡겨 드립니다.

932. 그 무엇도 그대의 “예”를 흔들어 놓아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그대 스스로 약해지면 안됩니다. 마음 속에 서약한 것을 이제는 외적으로도 서약 하는 것입니다.

933.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신비와 맺은 계약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오늘 그대의 결심을 새롭게 다지고, 죽음을 각오한채, 요새 안에서 용감하게 승리할 줄 아는 것입니다.

934. 지금이야 말로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도 좋은 기회가 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제가 약속한 “예”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935. 우리 “예”의 동정녀께서는 하느님의 계획 앞에 유순하고 능동적이셨습니다. 이 지상에 신적 사고방식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하느님의 아름다운 모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모님의 “예”를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대도 하느님의 모상이 될 것입니다.

936. 사랑의 비밀을 새겨가는 사람들, 그대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의 사슬들로 새겨져 있기를...!

937. 세상은 끊임 없이 계속 이어지는 "예"의 멜로디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세상에 주십시오.

938. 하느님, 저의 "예"가 당신의 영원한 뜻에 대한 항구한 결심을 표현하는 것이 되기를...!

939. 하느님께서는 그대 영혼 안에 깊이 새겨진 부르심에 충만하게 응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대의 "예"는 교회의 짐을 덜어 주고, 영혼들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940. 하루, 또 하루. 그대 봉헌의 삶이 엮어져 갑니다. 이는 계속되는 "예"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사슬입니다. 그대의 "예"에 결코 녹이 스는 일이 없게 되기를...!

941. 그대는 하느님의 작은 집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여왕이신 마리아께서 언제나 자유롭게 "예"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결코 그분 사랑의 계획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942. 성모님, 저는 늘 "예"라고 응답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잘 나오지만은 않아요. 도와주십시오.

943. 마리아의 “예”의 노예가 되는 것 보다 자기 영혼을 다스리는 더 훌륭한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예”가 되십시오. 마리아께서 사랑으로 그대 영혼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944. 성모님의 시선은 저 높은 곳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단순하게 당신의 “예”를 발하셨는지...! 그대의 “예”가 마리아의 “예”로 가득 찬 것이 되기를...!

945. 마리아의 영혼에는 언제나 “예”의 역사가 들려 옵니다. 그 역사는 성령의 활동 아래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그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이신 성령께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분의 포로가 되십시오. 마리아의 “예”의 메아리가 되어버린 그대 삶의 역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형제들을 미소 짓게 하시도록 말입니다.

946. 성모님의 향구한 “예”가 천국에 얼마나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지요! 천국의 기쁨이 계속되도록 그대는 이 지상에서 그분의 메아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947. 그대의 “예”가 화려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예” 그 자체입니다.

948. 어머니, 당신의 미소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깊고도 강한, 그리고 꿰뚫는 그 시선을 원합니다. 당신 눈길의 "예", 당신 기쁨의 "예", 당신 미소의 "예"를 원합니다. 당신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949. 서약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말들은 하느님 말씀의 메아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심은 실제로 있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그분 말씀처럼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